**교제와 나눔**

**ㆍ교회당예배:** 주일 15시 예배, 비대면예배 16시. 토요일에 예배참석 신청 마감.

**ㆍ성탄 및 송년주일:** 오늘 15시 예배당, 전교인 연합 예배

**ㆍ송구영신새벽기도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12월27일(월)~1월1일(토), 07시 비대면 기도회

**ㆍ신년주일 예배:** 2022년 1월 2일, 연합예배, 말씀받기

**ㆍ헌금:** 비대면예배 드리신 분들은 교회구좌로 송금해 주세요.

**ㆍ2022년 말씀일기 은혜나눔 신청:** 신청서의 원하는 날짜에 서명해 주세요.

**\*\* 함께 기도합시다 \*\***

1)교회당예배가 은혜롭고 안전하게 하소서.

2)코로나19를 속히 잠잠케 하여 주소서.

3)확진자들을 속히 회복시켜주시고, 백신접종 과정이 원활하게 하소서.

4)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말씀일기 일정**

일/골2:6-15 월/골2:16-23 화/골3:1-11 수/골3:12-4:1

목/골4:2-9 금/골4:10-18 토/요1:1-8 일/요1:9-18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95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12월 26일** | **1월 2일** | **1월 9일** | **1월 16일** |
| **예배기도** | 김평임 | 박희영 | 서민규 | 나지홍 |
| **말씀일기** | 한상철 | 허지은 | 민경웅 | 조선형 |
| **안내위원** | 예배부 | | | |
| **헌금위원** | 김학순 서영지 | | | |

**38-52호 2021년 12월 26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116:2)

주일예배 15: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5:00 Teestube

청소년부 15:00 Teestube

청년부 성경공부 16시 Teestube

토요기도회: 07:00 각 가정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76-5574 1290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성탄 및 송년주일 예배**

**(유**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 왕이신 나의 하나님 …………………  ※예배부름/Eingangsgebet ………………………………...........………………………………………………............. | 다함께  인도자 | | |  |
| ※찬송/Gemeindelied ………......................... 69장 1,6절 .................................... | | 다 함 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120번 ……………................... |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28장 ……….………………..……….. | | 다함께 |
| 기도/Gebet …….................…………...................................................…………..............  말씀일기/Bibeltagebuch …………………………………………….............................  암송 및 율동찬양/Tanzen ……………………………………………........................  찬양/Chor ……………………. 저 들 밖에 한 밤 중에 | | 김평임 집사  한상철 장로  유초등부  청소년부 |
| 거룩한 주 예수 / 사랑의 왕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누가복음 2:22-40 …………….……… | | 4중창단  인도자 |
| .설교/Predigt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 | 손교훈 목사 |
| 기도/Gebet …………........………………………………………………....................................  찬송/Gemeindelied .…………………............. 593장……………..…………………….  봉헌/Kollekte……….......................................................................................................... | | 설교자  다 함 께  다 함 께 |
| 교제/Bekanntmachung ……….……………………………………..............………............. | | 다함께 |
| ※주기도송/Vaterunser…………………………………………………………………………… | | 다함께 |
| ※축도/Segen ………………………….……………………………………………...................... | | 손교훈 목사 |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V.

Bank: Stadts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 ‘복음의 걸림돌’ (골2장) ◀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8).

아예 악한 것, 누가 봐도 유혹이다 싶은 것은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교회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될 때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그것이 ‘거룩’이나 ‘경건’을 앞세운 논리나 규칙이 될 때, 가장 복음적인 것처럼 자리를 잡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

오늘 말씀은 얼핏 읽으면, 어떤 지식이든 제도이든 세상 것들은 천하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 주장되고 진행되고 있는 전통과 교리에는 무조건 따르라는 말처럼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다. ‘복음의 전사’인 바울의 눈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인 것이 잘 보였고, 특히 교회라는 울타리 내에 진짜 복음처럼 자리잡으려 하는 사이비 복음들을 걷어내기 위해 애를 썼던 것이다.

교회 안에 있는 전통과 규례 속에 경건과 거룩을 가장한 비복음적인 것들을 솎아내야 한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16) 등에 관한 규례를 그저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된 경건 즉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18) 등은 복음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니, 이러한 전통과 규례를 고집하며 쉽게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복음이 주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

읽으면 읽을수록, 유사 복음의 걸림돌을 뛰어 넘어 복음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자고 하는 바울의 절절한 권고가 내 가슴을 파고 든다. 길지 않은 인생, 결국은 다 불에 타 없어질 껍데기 종교인으로 살 수는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인생의 무게로 자주 쓰러지는 지체들의 걸림돌을 치워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 어깨 위에 또 하나의 짐을 올려 놓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